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명절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중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589장 다 같이

-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에 향기 진동 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참여 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 인도자

성경말씀 시편 100 : 1~5 인도자

설 교 「 감사함으로 」 말 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함을 훨씬 넘어 감사할 줄 모를 뿐 아니라 감사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노르웨이 격언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 낙심과 시기와 질투 같은 씨를 뿌려 우리를 불행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 같은 씨를 뿌릴 수 없고,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범사에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거나 최고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까지의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감사하다”(Thank)의 어원은 “생각하다”(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며 늘 함께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10장 다 같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흑 밤에 흑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 다 같 이

(교 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과 이룬 것들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023 추석명절 가정예배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은교회

